

‘땅’의 語源 試考

한 연 석*

< 目 次 >	
I. 서론	1. 訓·音借 표기로서의 地, 處, 土
II. 땅의 어원에 대한 기존 학설	2. 音借 표기로서의 大, 多, 墮, 達, 吐
1. 땅의 어원이 ‘달’이라는 견해	V. 地의 訓·音借로서의 땅의 語源 ‘달’ 試探
2. 땅의 어원이 ‘未詳’이란 견해	1. 訓詁學的 高증을 통한 탐색
III. 땅의 개념과 同源語	2. 音韻學的 高증을 통한 탐색
1. 땅의 어형 변화	3. 漢語音韻史와 地의 古字 ‘墮’를 통한 탐색
2. 땅은 多義語이며 ‘데’ ‘다’와 同源語	VI. 결어
IV. 땅 표기 한자의 성격검토	

<국문 초록>

‘따(땅)’의 語源에 대해 未詳과 ‘달’이라는 주장이 상존한다. 필자는 ‘달’이 祖語라는 주장에 동조하되, 그 방증은 국어학계와 달리 上古漢語 ‘地’에서 찾았다.

上古漢語에서 地의 독음은 ‘달’이고, 이 ‘달’이 ‘따’와 ‘지’로 音變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따(땅) 지(地)’의 ‘따’와 ‘지’는 모두 상고한어 ‘달’의 音變이고, ‘달 > 따 > 지’의 변화를 겪었을 것이다. 地는 수용초기 ‘강 강(江)’처럼 ‘달 달(地)’의 訓·音借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漢語의 변화와 그에 따른 우리자전의 수용과 세속의 보수적 독음 고수로 인해 ‘달, 따, 지’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면서 ‘따’와 ‘지’를 訓과 音으로 오해하게 되었다. ‘달, 따, 지’와 이들의 혼재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교수 / hanyoun4860@hanmail.net

첫째 地의 上古音은 ‘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존 音韻書는 자료의 한계로 ‘定紐 歌部’의 ‘다, 대(dǎi)’로만 再構 하나, 地의 古字 墜의 ‘定紐 物部 diwǎt(달)’을 참고하면 상고의 어느 시점에서는 ‘달’로 읽었을 것이다.

둘째 地의 ‘달’이 ‘따’로 演變된 것은 입성운미 소실의 한어음운사가 반영된 것이다. 민간어원에 보이는 ‘多大墮 咄’ 역시 한편으로는 이를 반영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고한어에서 이미 운미가 탈락된 地의 ‘定紐 歌部’를 반영(音借)한 것이다.

셋째 ‘따 지(地)’의 ‘지’는 地의 中古音 ‘定紐 至部 di’를 반영한 것이다.

넷째 ‘따 지(地)’의 ‘따’와 ‘지’는 地의 訓·音借인 ‘달 달(地)’의 演變이다. ‘따’를 訓, ‘지(地)’를 音借로 인식하는 것은 漢語의 변화에 따른 우리자전의 수속과 세속의 보수적 태도 때문이다. 황윤석의 언설을 참고하면 새로 제작되는 자전은 중국의 변화된 독음을 반영하고, 세속은 오래전에 받아들인 음가를 고수하려는 경향을 띄게 된다고 한다. 예컨대 地의 독음은 中古漢語(唐代)에 이미 ‘지(di)’로 연변 되었는데 삼국사기 등 문헌이나 양달 음달의 ‘달’에는 여전히 수속 초기의 독음 ‘달’을 고수한다. 다시 중고음에서 이미 독음이 ‘지’로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17세기 이후에도 여전히 상고음인 ‘따(다, 대(dǎi))’를 쓰기도 하였다. (민간어원 ‘多大墮 咄’가 ‘따’의 音借임)

이렇게 17세기 이후 세속과 ‘훈몽서’ 혹은 자전의 독음 반영이 축차적으로 일어나 결국은 ‘달 달(地)’의 訓·音借가 ‘따 지(地)’로 변해 ‘따’와 ‘지’를 訓과 音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

다섯째, 우리말 ‘따(땅)’는 토지 대지 장소를 아우르는 多義語이고 ‘다, ㄷ, ㅌ’와 同源語이며, 이의 한자기록 ‘土, 地 處’는 ‘따(땅), 다, ㄷ, ㅌ’의 訓·音借이다. 그렇다면 우리말 ‘따(땅), 다, ㄷ, ㅌ’는 漢語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다. 漢語 ‘地 土 處 所 場’은 대략 上古音이 ‘따(달), 다, 처, 타’이고, 대지 토지 장소를 나타내는 同源詞이다. 따라서 이는 우리말 ‘달’ ‘따’가 상고한어 地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同源語인 국어 ‘따, 다, ㅌ’는 초기에는 ‘地 土 處’를 가리지 않고 사용하였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대략 토지 대지의 ‘따’는 地로, 장소의 ‘다, ㅌ’는 處로 수렴되는 듯하다.

【주제어】 달(達), 따, 땅, 地, 장소, 墜, 동원어

I. 서론

지금까지 ‘땅’의 어원에 대해 두 가지 서로 다른 주장이 존재했다. 어원 未詳이라는 주장과, 어원이 ‘달(달)’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달>1) 달> 다> 짜> 쌍’으로의 演變을 제시하고, 이의 主 표시 한자는 ‘地’라고 한다.

반면 어원이 未詳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달’이라는 한글 기록이 발견되지 않고 땅의 多義性으로 말미암아 주저한다. 15세기 이후 한글 표기에서 ‘땅’의 가장 이른 기록은 ‘짜(따)’이고 ‘달’은 보이지 않으며, 한글 기록 ‘짜’는 ‘대지, 토지, 장소’를 나타내는데, 삼국사기 등 전적에 보이는 ‘達’은 이들 외에 주로 산, 높은 곳 등을 가리키는 多義語이기 때문에 ‘達’이 한글 ‘달’과 동일한 땅의 어원인지 주저한다.²⁾ 즉, 한글 기록에 ‘따’만 보이기 때문에 阿斯達의 ‘達’처럼 문헌에 보이는 ‘達’이 땅의 祖語로 보이는 한글 ‘달’로 치환될 수 있느냐이다. 아울러 ‘달’을 조어로 보는 연구자들이 제시한 만주어 몽고어 일본어 등을 토대로 한 再構가 미덥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땅’은 ‘따(ㅎ)’에서 演變되었다는 견해는 일치한다. 단지 ‘달’이 ‘땅’의 조어인가, ‘달’에서 ‘따’로 연변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이상 국어학자들이 중심으로 한 땅의 어원 연구자들은 上古漢語 ‘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어원 ‘달’의 진원지로 알타이

1) 상고한어의 韻尾 ‘ㄷ’은 우리말에서 ‘ㄹ : ㄹ’로 반영되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달’은 ‘달’의 조어라고도 한다. 하지만 문헌에 ‘달’만 보이기 때문에 ‘달’을 ‘땅’의 조어로 본다.

2) 한자표기 ‘達’은 이미 三國史記 등에 보인다. 단, 이때 ‘達’은 주로 ‘높다’란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대지, 토지 등을 나타내는 ‘땅(달)’과 동의어인가의 확신은 없는 듯하다. 이병도는 “達은 원래 山岳의 뜻이지만, 谷地, 乃至 따(地)의 義로도 쓰인 듯하니, 「陽달」(양지쪽) 「陰달」(음지쪽) 「빗달」(傾斜地)의 달이 즉 그것이다.”라 하여, ‘達’은 ‘山岳’이란 뜻에서 땅의 뜻으로 연변 되었다’고 한다.(李丙燾, 『阿斯達과 朝鮮』 特히 그 名稱에 對하여, 『서울대 論文集』 2호, 서울대학교 1955, p.6.)

어 몽고어 만주어 등 외부 언어, 阿斯達의 ‘達’, 三國史記에 보이는 지명소 ‘達’, 그리고 譯書나 민간어원에 등장하는 大, 多, 墮, 吐 등을 참조는 하였지만, 이를 地와 地의 同源字를 통한 탐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땅의 어원이 ‘달’이라는 주장에 동조한다. 그리고 ‘달’은 漢語 ‘地’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강 江(江)’처럼 수용 초기에는 ‘달 달(地)’의 訓·音借에서 ‘따(땅) 지(地)’로 演變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땅의 祖語가 ‘달’이고, 이 ‘달’을 地의 訓·音借로 파악함에 주저한 것은 地의 讀音과 語義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는 地의 ‘따(땅)’를 단순히 地의 뜻으로만 여겼지 그것이 地의 독음까지 나타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본고는 ‘땅’의 어원이 ‘달’이고, ‘달’은 상고한어 地의 독음과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개연성을 음운학적, 훈고학적으로 고증하고자 한다. 국어 대지, 토지를 나타낸 ‘달(땅)’과 장소, 처소를 나타낸 ‘다’ ‘데’는 同源語이다. 똑같이 地와 ‘土, 處, 所’는 上古漢語에서 대지, 토지, 처소, 장소를 나타낸 同源字이다. 본고는 땅의 어원이 ‘달’임을 고증하기 위해 ‘땅’의 主 표기 한자 地와 地의 동원자의 字源을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讀音측면에서는 地와 同源字의 上古音을 통해 땅의 祖語 ‘달’이 地에서 왔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민간어원 땅의 異表記 多, 大, 達, 墮 등의 음운을 통해 이를 보충하고자 한다. 意義측면에서는 地와 地의 同源字의 字源을 분석하여 ‘달’이 ‘地’에서 왔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땅의 어원에 대해 국어학계와 다른 上古漢語에서 탐색하여 어원 논의의 다양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는 하나의 試論이지 반드시 필자의 견해가 옳다는 것은 아니다.

II. 땅의 어원에 대한 기존 학설

1. 땅의 어원이 ‘달’이라는 견해

서정범과 조영언은 ‘달’이 ‘땅’의 祖語라고 한다. 서정범은 땅의 어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땅의 발음은 후대에 첨가된 것을 알 수 있다. 『ㅈ(地)<解例合字>. 음달> 응달(陰地)(陰), 양달(陽地)의 ‘달’이 땅(地)이란 뜻이며, 땅의 조어형(祖語型)이 ‘달’임을 보여주고 있다. 달> 다> ㅈ> ㅈ의 변화를 거친 말이다. tsutsi(土)<日>. 일본어 tsutsi(土)는 국어 ‘달’이 건너간 것이라 하겠다. tsutsi(土)의 어근은 tut이라 하겠다. dalan(堤)<滿>, tala, talmai(曠野)<蒙>, tala(野路)<滿>. 어근 tala은 국어 ‘달(달)’과 동원어(同源語)가 된다고 하겠다. 달(地), 돌(石), 들(野), 달(土)과 동원어가 된다고 하겠다.³⁾

서정범은 음달, 양달의 ‘달’이 땅(地)이란 뜻이며, 일본어 tsutsi(土), 만주어 dalan(堤), 몽고어 talmai(曠野)와 同源語이고, 祖語型은 ‘달’이며 땅, 흙, 대지, 토지를 나타내는 달(地), 달(土)과도 동원어가 된다고 한다.

서정범은 ‘달’에 대해 “우리말의 조어는 단음절어로서 폐음절어인데 통시적으로 개음절화 하고 있다.”⁴⁾고 하면서 우리말 “祖語의 語根末音은 거의 ㅈ”⁵⁾이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달’의 祖語는 ‘달’이라고 한다. 서정범은 地(土)의 ‘달’에서 演變된 ‘달’이 다시 ‘따(ㅈ)’ 혹은 ‘다’로 演變된 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頭는) 單音節語일 때는 t'ou와 같이 閉音節語지만 老頭일 때는 t'ou과 같이 ㄹ末音을 維持하고 있다. t'ou는 ㄹ末音節語인데 본래는 單音節語 t'or이었다고 하겠다.⁶⁾

3) 서정범, 『國語語源辭典』, 보고서, 2000, 초판. 2001, p.213.

4) 서정범, 『國語 語源研究 方法論』, 『어원연구』 제1집, 한국어원학회, 1998, p.16.

5) 서정범, 『國語 語源研究 方法論』, 『어원연구』 제1집, 한국어원학회, 1998, p.21.

6) 서정범, 『國語 語源研究 方法論』, 『어원연구』 제1집, 한국어원학회, 1998, p.53.

頭(두)의 경우처럼 漢語 가운데 단음절어일 때 閉音節語는 古時에는 ㄹ 末音節語일 확률이 높다고 한다. 地가 ‘다’ 혹은 ‘따(차)’로 연변된 것은 중국어 頭에서 ‘l(r)’이 탈락하여 ‘두’로 발음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서정범은 땅의 祖語 ‘달’은 본래는 발음이 ‘ㄷ’이었을 것이고, ‘ㄷ(달)’ 발음이 ‘ㄹ(달)’ 발음이 된 것은 자연스런 언어 연변으로 同源語인 일본어 몽고어 만주어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달(달)’이 ‘따(차)’로 연변된 것은 우리 국어가 본래 단음절어, 폐음절어 이었던 것에서 개음절화 된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말’이 ‘머리’로, ‘들’이 ‘두더’로 변한 것과 중국어 ‘t’ou(頭)가 ‘t’ou(頭)로 변한 현상과 같다고 한다.⁷⁾

서정범은 우리말이 중국어와도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 가운데 하나이다.⁸⁾ 서정범은 ‘달’이 上古漢語 地와 상관이 있을 것이란 개연성은 제시했으나, 중국어 地에서 왔을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았다. 즉, ‘달(땅)’이 상고한어 地의 訓·音借일 것이란 유추를 하지 않았다. 조영언도 ‘달’이 땅의 어원이라고 하였다.

달[=땅], 양달/응달<노스트라티카**tal-/*tal-* ‘평평하고 넓은 곳; 들, 달[=땅]’
 조선 옴달<응달 : 背陰地 背陰處(유창돈)⇒ 들, 달
 달[=산, 높은 곳], 다락방[=집안의 높은 곳의 방] 삼국 『삼국사기』 지리지
 [高]城郡本高句麗[達]忽; 土[山]縣 本高句麗 息[달]; 功木[達]—云熊閃[山]⁹⁾

조영언은 ‘달’은 땅과 동의어인데 ‘평평하고 넓은 곳’, ‘들’ 외에도 ‘산(높은

7) 김지형은 이런 현상에 대해 “中國 漢字音의 [ㄷ]는 韓國 漢字音에는 [ㄷ(r)]로 수용되는데, 이를 逆으로 생각한다면 漢字가 수용될 당시에 中國音에서는 아직 ‘/t>/l/’의 音韻變化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말의 語末 /ㄷ/음이 轉寫될 때에는 [ㄷ]로 轉寫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 하였다.(김지형, 『同名異記 人名語 音韻 語源』 - 『三國遺事』를 중심으로 -, 『어원연구』 제2집, 한국어원학회, 1999, p.168.)

8) 서정범, 『國語語源辭典』, 보고서, 2000, 초판. 2001, 2판, pp.14-16 참조.

9) 조영언, 『한국어 어원사전』, 다솜 문화출판사(부산 중구), 2004, p.113.

곳)’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박재양은 땅의 어원을 매우 폭넓게 보고 있다.

자리의 어원은 원초적인 자리 곧 흙, 땅(土)이라 생각된다. 땅도 중세어에서는 다(테의 古形)로 『月印釋譜』에 나오며, 『訓民正音』 解例本에는 ㅈ 爲地로 나온다.¹⁰⁾

땅에서 파생되었다고 여겨지는 낱말로는 들(野), 양달, 응달의 달, 비탈의 달, 마당의 당, 구들의 들, 온돌의 돌, 돌(石), 자갈의 자, 터(基地), 언덕의 덕, 구덩이의 덩이, 바닥의 닥, 바둑의 득, 득(堤防), 죽담의 담 등 매우 다양하게 화석어로 남아 있다.¹¹⁾

박재양은 ‘자리끼’의 ‘자리’의 어원이 땅이라 하고, 땅의 중세어형은 ‘다’ ‘ㅈ’이며, ‘다’는 장소를 나타내는 ‘테’의 고형이라고 한다. 아울러 땅에서 다양한 국어가 파생되었다고 하였다. 박재양은 양달, 응달의 ‘달’이 땅의 祖語가 아닌 파생어로 보았지만 마당의 당, 구들의 들, 온돌의 돌, 자갈의 자, 언덕의 덕, 바닥의 닥, 득(堤防), 죽담의 담 등이 모두 땅에서 파생된 同源語라고 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달’은 ‘땅’의 조어이고 달(地), 응달, 양달의 달, 돌(石), 들(野), 달(달, 土)과 同源이고, 넓게는 마당의 당, 구들의 들, 온돌의 돌, 자갈의 자, 언덕의 덕, 바닥의 닥, 득(堤防), 죽담의 담이 땅의 파생어이며, 장소를 나타내는 ‘테(다)’와도 同源語라고 한다. 또한 이들은 한글 기록 ‘달’(양달 음달의 달)과 전적에 보이는 한자 기록 ‘達’을 동일한 詞로 보고 있다.

2. 땅의 어원이 ‘未詳’이란 견해

땅의 어원이 未詳이라는 견해의 대표자는 조항범 김민수를 들 수 있다. 조항범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0) 박재양, 「자리끼 외 몇 단어의 語源」, 『어원연구』 제2호, 1999, 한국어원학회, p.66.

11) 박재양, 「자리끼 외 몇 단어의 語源」, 『어원연구』 제2호, 1999, 한국어원학회, p.66.

15세기 문헌에 ‘ㅅ’(訓民正音解例本 25)로 나온다. ‘ㅅ’는 ‘ㅎ’을 가진 이른바 ‘ㅎ’말음 체언이다. 그 어원에 대해서는 일찍이 한자 ‘土’(華音方言字義解), ‘墮’(宋南雜識), ‘多’(東言攷略 6) 설이 있어왔으나 모두 부회여서 믿을 수 없다. 아울러 ‘ㅅ’의 조어형(祖語形)을 ‘달’으로 잡고 ‘달>달>다>ㅅ’의 변천 과정을 제시하기도 하나(徐廷範 2000:213) 이 또한 신뢰할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ㅅ’의 어원을 밝히기 어렵다.¹²⁾

조항범은 土, 墮, 多의 민간어원과 서정범의 祖語形 ‘달’과 이로부터 ‘달>달>다>ㅅ’로의 演變을 부정한다.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땅의 15세기 문헌표기는 ‘ㅅ’이고 ‘달’이라는 표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항범은 ‘ㅅ(ㅅ’ㅎ)’는 ‘地’와 ‘處’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던 多義語라는 것은 인정한다.

김민수는 땅의 意義에 대해 ‘바다를 제외한 흙과 돌로 된 지구의 겉면’이라 하고 어원은 미상이라 하였다.¹³⁾ 한편 조항범의 주장은 그의 ‘양달’에 대한 언술에서 정리할 것이 있다. 앞에서 조항범은 서정범의 ‘달>달>다>ㅅ’의 변천 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양달’을 설명하며 ‘달’을 地의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양달’이 한자어 ‘陽地’에 대응되므로 ‘양달’의 ‘달’이 기원적으로 ‘山’의 ‘달’과 연계된다 하더라도 ‘山’의 뜻이 아니라 ‘地’의 뜻으로 파악해야 한다. ‘地’로서의 ‘달’은 ‘나달(여러 갈래로 통하는 곳), 산달(산이 있는 곳), 응달’ 등에서 확인된다.¹⁴⁾

12) 조항범, 『국어 어원론』, 도서출판 개신, 2009, p.195.

13) 김민수 편, 『우리말 語源辭典』, 태학사, 1997, p.286.

14) 조항범, 『국어 어원론』, 도서출판 개신, 2009, p.394. 조항범은 ‘양달’이 19세기 말에 보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옛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사전으로는 19세기 말의 <韓佛字典 14>(1880)에 ‘양달’로 처음 보인다. 20세기 초의 <朝鮮語辭典>(1938)에서는 ‘양달’을 ‘陽地’의 사투리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술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큰사전>(1957)에서는 ‘양달’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별이 잘 드는 비탈로 기술하고 있다.……’달’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山’이나 ‘高’의 뜻인 고구려어 *들>달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다.”

조항범은 ‘달’을 고구려 말 ***들**>달’과 연관시켜 高, 山의 뜻 외에도 地의 뜻도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서정범의 ‘단>달>싸’와 같은 演變은 부정하더라도 ‘달’이 땅(地)의 뜻을 지닌다는 것은 인정하는 셈이다.

이상 ‘어원 미상’이나, ‘달’로 보는 주장 모두 ‘달’은 ‘高, 山, 地, 處’의 뜻이 있다고 한다. 단지 祖語가 ‘달’이나 ‘싸(싸ㅎ)’이냐의 차이만 있다.

Ⅲ. 땅의 개념과 同源語

1. 땅의 어형 변화

서정범은 ‘달> 다> 싸> 쌍’으로의 연변을, 김민수는 ‘싸ㅎ>싸>쌍>땅’을, 조항범은 ‘싸>싸ㅎ>쌍>땅’을 제시하였다. 백문식은 조항범과 거의 같은 견해를 보인다. 그는 “‘싸’는 ‘ㄷ’로 소급되며 15세기에 곳[장소]의 뜻을 나타내었다. 이것이 ‘ㄷ> 싸ㅎ>쌍>땅’으로 변천하였다.”¹⁵⁾고 한다. 그리고 ‘싸ㅎ’의 ‘ㅎ’가 땅의 ‘ㅇ’으로 연변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싸ㅎ’에서 /ㅎ/이 /ㅇ/으로 굳어진 예는 ‘집+우ㅎ[上]+ㅇ>지붕, 나조ㅎ>나중>나중’이 있다. ‘싸ㅎ’은 17세기에 와서 ‘쌍’으로 변했다.¹⁶⁾

‘싸ㅎ’의 ‘ㅎ’이 ‘ㅇ’로 연변 되어 ‘쌍(땅)’으로 된 것은, ‘집+우ㅎ’에 ‘ㅇ’이 첨가되어 지붕으로, ‘나조ㅎ’의 ‘ㅎ’이 ‘ㅇ’으로 대체되어 나중(나중)으로 된 예와 같다고 하였다. 어떤 음운학적 이유에서 ‘ㅎ’이 ‘ㅇ’으로 연변 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ㅎ’이 ‘ㅇ’으로 演變된 예들을 찾을 수 있으며, 17세기에는 ‘쌍’, 20세기에는 오늘날과 같은 ‘땅’으로 쓰게 되었다고 한다.

15) 백문식,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 三光출판사, 1988, p.133.

16) 백문식,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 三光출판사, 1988, p.133.

2. 땅은 多義語이며 ‘데’ ‘다’와 同源語

땅은 지금 주로 ‘논밭이나 집터’로 인식하고 있지만, 15세기 이후 우리 조상들은 비교적 광범위한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토지와 장소의 개념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였다.¹⁷⁾ 백문식은 땅은 “영토·지방·곳”이고, “15세기 문헌 표기는 ‘샤ㅎ’”이며 “바다에 대하여 육지(陸地)를 ‘물’이라 하고, 하늘에 대하여 대지(大地)를 ‘땅’이라 한다.”¹⁸⁾ 하였다. 전적에 보이는 ‘샤’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麗語謂復舊土爲多勿<三國史記>
- ② 샤 爲地<訓民正音解例>
- ③ 샤토 平ㅎ며 나모 성하더니<釋譜詳節>
- ④ 쌍을 꺾고<東國新續三綱行實圖>
- ⑤ 알픈 샤히(痛處)<救急簡易方>
- ⑥ 아모드라셔 온동 모르더시니<月印釋譜>¹⁹⁾
- ⑦ 데 :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말. ㄷ(의존명사) + -ㅣ(주격조사).
 ㉠ ㄷ(處, place, spot, situation, locality.)<한영 1890 147> 우목훈ㄷ(凹子)<역해-지리 상 : 6b> <방석-가도 2 : 18a> 우목훈ㄷ(凹子)<화초-지리 2b>
 글 비호는 ㄷ, 學堂(學裏)<역해-학교 상 : 15a>²⁰⁾
- ⑧ 다 : 데.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말. ㉠ 놀애 부르는 神靈이니 부터 說法호신 다마다 다 能히 놀애로 브르습느니라<월석 1 : 15>²¹⁾

①~④의 땅은 대략 대지(大地), 토지를, ⑤의 땅은 ‘장소’의 개념을 나

17) 조항범은 ‘땅’은 대지, 토지와 장소를 나타내었다고 한다. : ‘샤ㅎ’는 ‘地’와 ‘處’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던 다의어이다. “하늘 祭호던 샤ㅎ 보고”(月印釋譜 6:19)의 ‘샤ㅎ’는 전자의 의미로, “ㄱ는 말쑤 그즌 ‘샤히라’(月印釋譜 序:8)의 ‘샤ㅎ’는 후자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지금도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조항범, 『국어 어원론』, 도서출판 개신, 2009, p.195.)

18) 백문식,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 三光출판사, 1988, p.133.

19) 백문식,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 三光출판사, 1988, p.133. ‘땅’ 재인용.

20) 박재연 주편, 『필사본 고어대사전』(6권), 學古房, 2010, p.839.

21) 박재연 주편, 『필사본 고어대사전』(5권), 學古房, 2010, p.243.

타낸다. ‘싸(땅)’의 한자 표기로 ②는 地, ⑤는 ‘處’로 썼다. ⑥, ⑦, ⑧은 장소를 ‘딤(테), ㄷ, 다’로 표기하였다. ‘장소’를 나타내는 ‘데(딤), ㄷ, 다’는 초기에는 ‘地, 處, 所, 土’의 音借로 보이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近音인 ‘處’로만 나타내게 된 듯하다.

IV. 땅 표기 한자의 성격검토

전적에서 ‘따(싸ㅎ. 땅)’를 표기한 地, 處, 土, 多, 大, 達, 吐, 墮 등은訓과 音을 동시에 나타낸 訓·音借와, 독음만 나타낸 音借로 분류할 수 있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訓·音借 표기로서의 地, 處, 土

1) 地

① 따ㅎ : 땅. ㄱ 地 || 아비는 하늘이요 어미는 따히라(父天母地)<여사해 4:11b> 하늘과 따흔 지나갈지라 내 말은 지나가지 아니리라.....<신명-영도 상:11a>²²⁾ ② 싸ㅎ(坤)<능엄 6 : 34>²³⁾

①의 ‘따ㅎ’는 ‘하늘’에 상대한 ‘땅’의 개념을 나타내고 이를 地로 표기하였다. ②의 ‘싸ㅎ’는 ①과 같으나 ‘坤’으로 나타내었다.

2) 處

③ 알픈 싸히(痛處)<救急簡易方>²⁴⁾

22) 박재연 주편, 『필사본 고어대사전』(6권), 學古房, 2010, p.925.
23) 박재연·이현희 주편, 『고어대사전』(13권), 선문대학교 출판부, 2016, p.604.
24) 백문식,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 三光출판사, 1988, p.133. ‘땅’ 재인용.

③의 ‘ㅅㅏㅎ’는 장소를 나타내며 處로 나타내었다

3) 土

④ ㅅㅏㅎ : 땅. 곳. 장소. ㅍㅏ ㅅㅏㅎ(土) <월석 - 서 41 - 1: 30>²⁵⁾ ⑤ 土音ㅅㅏ²⁶⁾

④는 땅, 장소를 土로 나타내었다. ⑤의 土는 독음이 ‘ㅅㅏ’라 하였지만 이는 ‘따(땅)’의 訓·音借 표기라 할 수 있다.

정리하면 ‘ㅅㅏㅎ(땅)’는 토지, 대지, 장소를 나타내는 多義語이며 이를 ‘地, 土, 處’로 나타낸다. 대지, 토지, 장소를 나타내는 ‘ㅅㅏㅎ(땅)’는 古語形인 ‘달’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㉓ 음달(陰-) ‘음달’의 원말. [어원 陰√달(地)] 변화. 참고 ①陰 + √달[地](한진건 1990,3)²⁷⁾

양달(陽-) : 별이 잘 드는 곳. [어원 陽 + √달(地, 山)] 변화. 陽달 > 양달. 참고 ①陽 + 달√달[地, 山](安玉奎 1890, 11. 한진건 1990, 3)²⁸⁾

㉔ 음달 : 음달. 별이 잘 들지 아니하는 그늘진 곳. ㅍㅏ 음달(背陰地) <방석-지여 1 : 9b> 음달(背陰處). <동해-천문 상 : 3a> <몽해-천문 상 : 2b> 음달(背陰) <한청-천문 1 : 2b> 음달(陰地, Shady side)<한영 1890 17>²⁹⁾

25) 박재연·이현희 주편, 『고어대사전』(13권), 선문대학교 출판부, 2016, p.604.

26) 黃胤錫 原著, 姜憲圭 譯註, 『(譯註 影印) 華音方言字義解』, 三光出版社, 1985, 영인부분 p.14.

27) 박재연·이현희 주편, 『고어대사전』(8권), 선문대학교 출판부, 2016, p.829.

28) 박재연·이현희 주편, 『고어대사전』(8권), 선문대학교 출판부, 2016, p.720.

29) 박재연·이현희 주편, 『고어대사전』(16권), 선문대학교 출판부, 2016, p.398. 『고어대사전』 1차 출판본에는 음달 양달의 ‘달’을 ‘地’로 보았다. 하지만 본 인용문 같이 확장된 2차 출판본에는 음달의 ‘달’의 어원을 밝히지 않았다. 물론 양달의 ‘달’도 어원을 제시하지 않고 “양달 : 별이 잘 드는 곳. ㅍㅏ양달(陽地. The sunny side. toward the sun.)<한영 1890 7>. (박재연·이현희 주편, 『고어대사전』(14권), 선문대학교 출판부, 2016, p.510.)”라 하였다. 『한국어대사전』은 양달은 “[+陽±달] 별이 잘 드는 곳. 유의. 당양지지(當陽之地). 별받이. 양지(陽地)”라 하고, 음달은 “[+陰±달] ‘음달’의 원래 말,” 음달은 “햇별이 잘 들지 아니하는 그늘진 곳. 유의.

㉔ 背北陰地인^㉔地디띠○음달³⁰⁾

㉔는 음달과 양달의 ‘달’을 ‘地’로 보았다. 이 ‘달(地)’은 ‘땅’도 ‘장소’도 모두 나타낸다. ㉕는 ‘달’을 ‘地’가 아닌 ‘處’로도 나타내었음을 보여준다. ㉔는 地가 ‘달’과 대응된다고 하였다. 인용문은 ‘달’을 ‘(背陰)地’와 ‘(背陰)處’로 표기하고 있다.

이상 대지, 토지, 장소를 나타낸 ‘따(땅)’는 地외에도 ‘處, 土’ 등으로 표기하였다. 따라서 ‘달’은 한자수용초기에는 ‘地’의 訓·音借로 볼 수 있다.

2. 音借 표기로서의 大, 多, 墮, 達, 吐

전적에서 땅은 大, 多, 墮, 達, 吐로도 나타낸다. 이들은 모두 음차표기로 주로 민간어원에 보인다.

1) 大

15세기말 明代 외국 사신 접대를 담당하였던 會同館 通事들의 조선어 교육용 교재 『朝鮮館譯語·地理門』에 “地를 大라 한다.(地, 大)”³¹⁾고 하였

음지(陰地)라 하였다. ‘달’이 地를 의미한다는 암시는 있었지만(當陽之地) 명시적으로 ‘달’이 땅, 혹은 장소를 나타낸다고 하지는 않았다.(고려대학교민족문화원, 『한국어대사전』, 2009, p.4178, p.4884, p.4899 참조.)

30) 서울大學校 奎章閣韓學研究院 編, 『譯語類解』(奎章閣資料叢書 : 語學篇)(영인본), 서울대학교, 2005, p.264. 『譯語類解補』에 ‘양달’은 보이지 않는다. 박찬식은 “『역보』는 1775년(을미년) 여름 김홍철(金弘喆)이 『역어』에서 빠진 것 62항, 2,297항목을 덧붙인 것이다. 『역어』는 17세기 말엽의 한어와 국어의 어휘자료이고, 『역보』는 그보다 80여 년 뒤인 18세기 후반의 자료이지만 한자어의 발음 표기는 『역어』와 다름이 없다.”(박찬식, 『유해류 역학서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8, p.26.)라 하였다.

31) 明代에 편찬된 『華夷譯語』는 중국의 변방 국가들과 중국어의 對譯 어휘집으로, 『조선관역어』는 『華夷譯語』 가운데 한 권이다. 『朝鮮館譯語』에 “地 大.”라 하였다. (國語學會編, 『國語學資料選集 I』 『朝鮮館譯語』, 一潮閣, 1972, p.190, 地理門.)

다. 즉, 15세기 말경 우리는 ‘땅’을 ‘大’로 발음하였다는 것으로, 擬音하면 대략 ‘따’ ‘다’이다. 이는 音借이다.

2) 多

李義鳳의 『東韓譯語』(『古今釋林』, 제3책)³²⁾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나라에 속에서 地를 多라고 하는데, 이는 (땅이) 衆多 하다면 뜻을 나타낸다. 禮記에 이르길 ‘지금 땅은 반 주먹 거리만한 흙이 많이 있는 것.’³³⁾이라 한 것이 그것인데, 지금은 訛變되어 ‘싸’라 한다.(地 多(本朝 俗呼地爲多 云衆多也 禮記云今夫地一撮土之多是也 今訛爲싸)³⁴⁾

『東韓譯語』는 地를 ‘多’라 한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나타낸 ‘訓借’라 하였는데, ‘大’라 한 것과 마찬가지로 音借이다. 鄭喬의 『東言攷略』에서도 “地는曰「싸」라 함은 多하다함이니 物의 衆多한 것을 載함이라”³⁵⁾라 하였으나 역시 音借를 訓借로 오해하였다. 『東韓譯語』의 ‘多’가 ‘싸’로 訛變되었다는 주장은 역설적으로 ‘多’는 ‘地’의 音借임을 증명한다.

백문식은 조선관역어의 地를 大라 한 것을 참조하여 땅의 당시 발음은 ‘때, 다’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장소를 뜻하는 ‘다’와 발음이 일치한다고 하였다.(백문식,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 三光출판사, 1988, p.133.)

32) 『古今釋林』은 정조 13(1789)년 문신 李義鳳이 우리말과 중국어, 흉노, 토번, 여진, 일본 등의 어휘를 모아 편찬한 辭書類이다.

33) 이곳은 예기 中庸第三十一의 문장이다. ‘今夫地一撮土之多’ 뒤에는 “넓고 두터움을 이루어 산악을 싣고도 무겁다 하지 않고 河海를 지탱하여 세지 않게 하여 만물이 여기에 깃들어 살게 한다.(及其廣厚, 載華嶽而不重, 振河海而不洩, 萬物載焉)”라 하였다.

34) 李義鳳 編, 『古今釋林』 제3책. 『東韓譯語』, 亞細亞文化社, 1977, p.685.) 백문식은 땅을 多라 한 것에 대해 “<삼국사기>의 ‘多勿[ta-mōr] 계(系) 땅이름이 그 근거가 된다. 땅을 뜻하는 만주어 na를 우리말 ‘나라[國]’과 대응하는 것으로 보는 설도 있다.”(백문식,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 三光출판사, 1988, p.133.)고 하였다.

35) 鄭喬, 『東言攷略』, 蓋馬書院, 1919년 既刊, 1981, p.14. 김민수 편, 『우리말 語源辭典』, 태학사, 1997, p.286.

3) 墮

『松南雜識』는 地의 독음은 墮의 訛變이라 하였다.

『說郭』에 “『鷄林類事』에 ‘하늘(天)을 漢捺이라 한다.”고 하였다. 나는 주역에 ‘하늘이 무너져 아래에 쌓여 있는 것을 땅(地)이라 한다.’ 하였으니, 지금 ‘땅(地)’이라고 하는 단어의 소리(讀音)는 아마 ‘墮’의 訛變이라 생각한다.(說郭有鷄林類事天曰漢捺 愚以爲易言隕然在下謂地 今釋地音似墮之訛也)³⁶⁾

『松南雜識』는 주역을 참고하여 우리말 ‘땅’은 ‘墮’라는 한자의 독음이 訛變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周易에 무너져 아래에 있는 것이 地라 하였으니, ‘ㅈㅎ’는 墮에서 온 말”³⁷⁾이라는 것이다.³⁸⁾

4) 達

‘達’에 대해 李丙燾를 비롯한 연구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달[=산, 높은 곳], 다락방[=집안의 높은 곳의 방] 삼국 『삼국사기』 지리지 [高]城郡本高句麗[達]忽; 土[山]縣 本高句麗 息[달]; 功木[達]一云熊閃[山]³⁹⁾

36) 본 『松南雜識』의 원문은 姜玟求譯, 『松南雜識』에서 채록하였다. 강민구 교수는 2008년 『松南雜識』을 완역하였다. 국어학분야의 논문이나 사전에는 ‘땅’의 어원에 대한 『松南雜識』의 원문과 구체적 출처가 표기 되지 않아 역자에게 이 부분 자료를 부탁하였다.(趙在三著, 姜玟求譯, 『松南雜識』, 소명출판, 2008, p.365.)

37) 김민수 편, 『우리말 語源辭典』, 태학사, 1997, p.286.

38) 趙在三의 “易言隕然在下謂地”는 주역 원문은 아닌 듯하다. 필자는 주역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단지 繫辭下傳 “夫乾, 確然示人易矣, 夫坤, 隕然示人簡矣”의 ‘隕然’만 보인다. 조재삼이 이를 추론하여 ‘隕然在下謂地’로 해석한 듯하다. 隕의 본의는 ‘무너져 내리다.’이지만 이곳 隕然의 隕은 ‘유순하고 화순한 모양’을 나타낸다. “隕然示人簡矣”의 韓康伯 注에 “隕은 유순한 모양(隕, 柔貌)”이라 하였고, 朱熹의 本義에도 “隕然은 순종하는 모양(隕然, 順貌)”이라 하였다.

39) 조영언, 『한국어 어원사전』, 다솜 문화출판사, 2004, p.113.

- ② 犁山城本加尸達忽(『史記』地理 4, 鴨綠江以北逃城).....百濟語와 新羅語에 서도 ‘山’을 tara라 하였다.⁴⁰⁾
- ③ 達은 원래 山岳의 뜻이지만, 谷地, 乃至 岫(地)의 義로도 쓰인 듯하니, 『陽堠』(양지쪽) 『陰堠』(음지쪽) 『빋堠』(傾斜地)의 堠이 즉 그것이다.⁴¹⁾

위 예문의 達은 대부분 산과 같이 높은 곳을 가리킨다. 達의 본의가 ‘이르다’이기 때문에 達은 ‘따(땅)’와는 상관없다. 따라서 ‘達은 ‘따(땅)’의 音借이다.

5) 吐(堤)

吐에 대해 이병선은 문장의 한 ‘소질 이름’으로 “*도(吐), *되(堤), *딤(竹)(>드, 딤, 데)處⁴²⁾”와 같이 제시하였다. 아울러 현행어 아무데의 15세기 국어는 ‘아모디’라 하고 史記에 보이는 ‘長堤郡本高句麗主夫吐 景德王改名 今樹州’의 ‘堤, 吐, 州’가 같은 관계이고 터(基)도 吐와 同源語로 보았다.⁴³⁾ 즉, 장소를 나타내는 ‘데’의 음차로 ‘吐, 竹’을 訓·音借로 ‘堤, 處’를 제시하였다.

이상 ‘多, 大, 墮’는 ‘따(땅)’의 訓借이 아닌 音借이다. ‘多, 大, 墮’의 상고, 중고음은 대략 ‘따, 다’로 擬音할 수 있다. 多是 많다, 大는 크다, 墮는 떨어지다, 達은 이르다, 吐는 토하다가 본의이기 때문에 字義가 ‘땅’이나 ‘장소’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達은 音借이다.⁴⁴⁾

40) 李炳銑, 『韓國 古代國名地名의 語源 研究』, 이회, 2012, p.267.

41) 李丙燾, 『阿斯達와 朝鮮』-특히 그 名稱에 對하여-, 『서울대 論文集』 2호, 서울대학교, 1955, p.6.

42) 李炳銑, 『韓國 古代國名地名의 語源 研究』, 이회, 2012, p.284.

43) 李炳銑, 『韓國 古代國名地名의 語源 研究』, 이회, 2012, p.284 참조.

44) 이병선이 吐와 동원어로 본 堤와 州는 訓과 音 모두 땅, 장소와 연관이 있다. 하지만 吐는 단순히 독음으로 땅과 장소를 나타낸다.

V. 地의 訓 · 音借로서의 땅의 語源 ‘달’ 試探

살펴보았듯이 땅의 祖語形은 ‘달(담)’이고 토지, 대지, 장소(곳)를 나타내었다. 국어는 이를 地, 土, 處로 나타내었고, 漢語 역시 地, 土, 處외에도 場, 所를 통해 나타내었다. 그렇다면 땅의 조어 ‘달’과 上古漢語 地, 土, 處, 所, 場은 어떤 언어학적 연관을 맺고 있을 것이다. ‘달’은 上古漢語 地의 訓 · 音借이다. 본란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두 가지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먼저 땅을 표기한 地, 土, 處와 상고한어에서 이들과 동원일 것으로 추정되는 場, 所의 자원을 탐구할 것이다. 이는 이들이 동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다. 아울러 이들의 자원 규명은 上古漢語에서 땅, 장소를 어떻게 표현했나를 살펴, 그것이 우리 국어 땅(장소)과 어떤 언어학적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어에서 땅, 장소를 표기했던 ‘地, 土, 處, 大, 多, 墮, 達, 吐’와 ‘地, 土, 處, 場, 所’의 上古音을 살펴 地, 土, 處, 場, 所가 同源의 조건인 音近 여부를 살피고 地, 土, 處, 大, 多, 墮, 達, 吐가 땅의 訓借인가 音借인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地, 土, 處, 場, 所의 자원 규명과 大, 多, 墮, 達, 吐의 음운규명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말 땅(달)이 한어 地에서 왔을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1. 訓詁學的 高證을 통한 탐색

1) 地의 字源을 통한 탐색

대지, 토지, 장소 등의 뜻을 갖고 있는 땅(싸, 따)은 地, 處, 土 등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漢語에서 地와 그의 同源인 處, 土, 場, 所 등 역시 대지, 토지, 장소의 뜻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말 ‘싸(따, 땅)’와 漢語 地와 그의 同源인 處, 土, 場, 所는 上古時 언어학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地는 아래와 같이 땅, 대지, 지구, 육지, 영토, 토지(田地), 장소, 거

주하다란 뜻이 있다.

① 땅, 흙

地는 설문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說文·土部』：“地(垷)는 元氣가 처음 분화될 때(천지창조) 가볍고 맑고 양의 기운인 것은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하고 음의 기운인 것은 땅이 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만물이 깃들게 되었다. 토가 뜻을 나타내고 也가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지(徒內切)’이다. 隤는 籀文 地로, 聲符가 隊이다.(地(垷), 元氣初分, 輕清陽爲天, 重濁陰爲地, 萬物所陳列也. 从土也聲. 徒內切. 隤, 籀文地从隊.)”

허신은 地의 본의를 천지가 창조될 때 무거운 원기가 내려앉은 것으로 만물이 살고 있는 곳이라 하였다. 상당한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지만 ‘땅이 본의라는 것이다. 地는 토가 뜻을, 也가 소리를 나타내는 형성자이다. 籀文은 隤(隤)인데 聲符를 隊로 바꿔 썼다.⁴⁵⁾

② 大地

大地로, 『易·繫辭下』 “우러러 하늘에서 상징을 살피고 구부러 대지(땅)에서 법상을 살펴보았다.(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라 하였다. 地面, 陸地로, 『左傳·僖公四年』 “公(獻公)이 이르자 毒을 바쳤다. 헌공이 이를 지면에 제사 지내자 땅이 솟아올랐다. 개에게 주자 개가 죽었다.(公(獻公)至, 毒而獻之. 公祭之地, 地墳. 與犬, 犬斃)”라 하였다.

③ 領土, 屬地, 地區

領土, 屬地, 地區로, 『周禮·地官·大司徒』 “여러 공들의 속지로, 분봉된 강역은 사방 500리가 되었다.(諸公之地, 封疆方五百里)”라 하였다.

④ 土地, 田地

土地, 田地로, 『史記·平準書論』에 “魏가李克을 등용하자 田地를 힘껏

45) 籀文 隤는 地의 古文으로 땅의 어원을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地의 이체자는 ‘窆 墜 隤 隤 隤 隤’가 있다.

이용하여 임금을 강하게 만들었다.(魏用李克, 盡地力, 爲彊君)”라 하였다.

⑤ 地方, 場所

地方, 場所로, 『管子·八觀』 “명석한 임금은 그 관문을 잠그고 길을 막고 그 흔적들을 덮어버려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한 장소(곳)를 접촉하지 못하게 한다.(明君者, 閉其門, 塞其塗, 弇其跡, 使民毋由接於淫非之地)”라 하였다.

⑥ 居住하다.

居住하다로, 『書·盤庚下』 “朕及篤敬恭承民命, 用永地於新邑(나는 독실하고 공경히 백성들의 명을 받들고 영원히 새로운 수도(新邑)에서 살고자 한다.)”의 楊樹達『積微居讀書記·尚書說·盤庚下』에 “地는 거주하다 이다.(地, 居也)”라 하였다.

2) 地의 同源 ‘土, 處, 所, 場’을 통한 탐색

토지, 대지, 장소를 나타내는 ‘土, 地, 場, 所, 處’ 등은 同源詞이다. 王力 의 『同源字典』에는 ‘土, 地, 場’을 동원으로 보지 않고 處와 所만 同源이라 하였다.⁴⁶⁾ 土, 處, 所, 場의 자원을 탐색하여 동원을 고증한다.(음운고증은 다음에 함)

① 土

土는 땅, 흙(土壤, 泥土), 田地, 國土, 地域, 地神 등의 뜻이 있다.

㉠ 땅

土는 설문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說文·土部』: “土(土)는 땅에서 사물을 낚아 길러주는 자이다. 土의 2개의 가로획 ‘二’는 땅의 아래와 땅의 중간을 나타내고 이에서 사물이 돌아나오

46) 본질적으로 이들을 同源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중국에서는 우세하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同源字典』의 보완연구인 劉鈞杰의 『同源字典補』에도 ‘土地場所處’가 同源이거나 혹은 ‘土地(場)’가 동원이라고 系聯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반절은 ‘토(它魯切)’이다.(土(土), 地之吐生物者也. 二象地之下、地之中, 物出形也. 它魯切)”

土의 본의는 ‘흙’이다. 허신의 자형 풀이는 오류이지만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허신은 이미 부호화된 소전 자형 土를 보고 자원을 풀이하였다.

㉠ 흙

『書·禹貢』 “厥貢惟土五色(그 5가지 색깔의 흙을 나뉜다.)”의 孔傳에 “제왕은 다섯 가지 색깔의 흙으로 社稷壇을 쌓아 만들고, 제후를 봉할 때는 5가지 색깔의 흙 가운데 분봉되는 지역을 상징하는 색깔의 흙을 주어 社稷壇을 만들게 한다.(王者封五色土爲社. 建諸侯, 則各割其方色土與之, 使立社)”라 하였다.

㉡ 田地, 土地, 國土, 領土

田地, 土地로, 『易·離』에 “온갖 곡식, 온갖 나무들이 토지(땅)에서 자란다.(百穀草木麗乎土)”라 하였다. 國土, 領土로, 『逸周書·作雒』 “周公及將致政, 乃作大邑成周於土中(周公이 장차 정치를 담당하려 함에 국토의 중앙에 수도를 세웠다.)”의 孔晁 注에 “王城은 천하 국토에서 중심을 나타낸다.(王城也, 於天下土爲中)”라 하였다.

㉢ 地方, 地區

地方, 地區로, 『詩·魏風·碩鼠』 “逝將去女, 適彼樂土(장차 너를 떠나 저 낙토로 가련다)”의 鄭玄 箋에 “樂土는 덕이 있는 나라이다.(樂土, 有德之國)”라 하였다.

㉣ 제방

제방으로, 『禮記·郊特牲』 “土反其宅, 水歸其壑(제방이 안정됨으로 돌아가, 물이 그 골짜기로 흘러갔다.)”의 孔穎達 疏에 “土는 제방이다. 反은 ‘돌아가다’ 이다. 宅은 ‘안정되다’ 이다. 제방이 그 안정됨으로 돌아가면 붕괴되지 않는다.(土即坊也. 反, 歸也. 宅, 安也. 土歸其安, 則得不崩)”라 하였다.

② 場

場은 마당, 장소, 채마전, 처소 등의 뜻이 있다.

㉠ 마당, 장소

場은 설문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說文·土部』：“場(場)은 神壇 옆의 길이다. 한편으로는 농사짓지 않는 밭(마당)이라고도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곡식을 말리거나 타작하는 곳이라고도 한다. 土가 뜻을 易이 소리를 나타낸다. 反절은 ‘直良切(장)’이다.(場(場), 祭神道也. 一曰田不耕. 一曰治穀田也. 从土易聲. 直良切)”

허신은 場의 본의를 ‘신단 옆의 길’이라 하였다. 허신이 본의를 설명함에 ‘一曰’이라고 한 것은 대부분 본의가 정확하지 않을 때 사용한다. 이곳 역시 ‘신단 옆의 길’ 외에 ‘마당’ ‘곡식을 말리거나 타작하는 곳’이라 하였다. 우리에게 마당, 곡식을 말리거나 타작하는 곳은 거의 같은 장소를 나타낸다. 하지만 중국은 모종의 용도로 농사짓지 않는 여유 공간과, 곡식을 타작하는 곳이 따로 존재하였던 듯하고, 이들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場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 채마전, 평지

곡물을 말리거나 타작하는 마당에서 채마전으로 인신되었다. 『詩·小雅·白駒』“皎皎白駒，食我場苗(희고 흰 망아지 우리 채마전 싹을 뜯어먹네)”의 朱熹集傳에 “場은 채마전이다.(場，圃也)”라 하였다. 제단 옆의 평지로, 『孟子·滕文公上』“子貢反，築室於場，獨居三年，然後歸(子貢이 돌아와 제단 옆에 집을 짓고 홀로 3년을 보낸 뒤에 돌아갔다.)”의 趙岐注에 “場은 공자의 무덤가 제단 옆의 평지이다. 子貢이 홀로 제단 옆 평지에 집을 짓고 거처하였다.(場，孔子塚上祭祀壇場也. 子貢獨於場左右築室)”라 하였다.

㉢ 처소, 장소

場은 사람이 모이거나 어떤 일이 발생한 ‘處所’의 뜻도 있다. 漢 王褒의 『聖主得賢臣頌』에 “자연을 따르는 형세, 청정 무위의 처소(遵遊自然之勢,

恬淡無爲之場”라 하였다. 또, 시장의 뜻도 있다. 班固의 『西都賦』 “시장을 열어 화물을 분배 한다.(九市開場, 貨別隧分)”라 하였다.

③ 処(處)

處는 멈추어 있음, 거주하다, 장소 등의 뜻이 있다.

㉠ 멈추어 있음

處는 설문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說文·几部』: “処(処)는 한곳에 멈추어 있는 것이다. 안석에 기대어 멈추어 있는 것이다. 几와 夊가 뜻을 나타낸다. 반절은 ‘처(昌與切)’이다. 處는 處를 성부로 채택하여 或體 處(處)로 쓰기도 한다(処(処), 止也. 得几而止. 从几从夊. 昌與切, 處或从處聲).”

허신은 현재 正體로 알고 있는 處는 或體이고 処가 정체라고 한다. 본 의는 머물러 있음이다. 居와 동의이다. 處는 갑골문에 보이지 않는다. 금문과 전국 시대 인장에 處(周中 藏盤) 處(周晚 井人鍾) 處(戰國印 万印)로 썼다. 상부 處(處)는 聲符이고, 處는 義符인데 處(夊)⁴⁷⁾와 處(安석)으로 구성되어 안석에 기대어 있음은 나타낸다. 이것이 곧 한 곳에 멈추어 있는 것이다. 處는, 하부 几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상부의 聲符 處는 訛變되었다.⁴⁸⁾ 이 자형이 訛變을 거듭하여 소전에 이르러 處로 쓰게 되었다. 상하결구의 處가 좌우결구의 處로 연변 되었다. 현재의 處는 處가 연변

47) 處는 止의 변형이다. 止는 곧 안석(几)에 멈춘다, 머무른다는 뜻을 나타낸다. 古時 유사한 자형 혹은 유사한 뜻을 나타내는 글자들은 종종 바뀌 쓰기도 하였다. 예컨대 口와 言(咏과 詠), 爪와 又(受의 상, 하부 부근) 등처럼 자이나 기능이 유사하면 바뀌 쓰기도 하였다. 止와 夊는 똑같이 발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바뀌 썼다. 사실 이 경우는 止가 아직 夊로 분화되지 않았다 할 수 있다.

48) 處는 자형이 너무 訛變되어 성부인 處(處)와 義符의 일부인 處(夊)가 接合되어 와변된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된 것으로 𡩺가 義符, 𡩺가 성부이다. 허신은 處가 흑체라 하였는데, 문자 자료로만 본다면 處가 정체이고 𡩺가 흑체이다.

㉠ 거주하다

處는 ‘멈추어 있음’으로부터 ‘거주하다, ~에 있다’로 引伸되었다. 『易·繫辭下』 “상고시대에는 움집에 살거나 들판에 거주하였는데, 후세 성인이 이를 집으로 바꾸어 살게 하였다.(上古穴居而野處, 後世聖人易之以宮室)”라 하였다.

㉡ 장소, 처소

장소, 처소란 뜻으로, 『墨子·兼愛中』 “남쪽의 江水, 漢水, 淮水, 汝水가 동쪽으로 흘러가 五湖에 물을 공급한다.(南爲江, 漢, 淮, 汝, 東流之, 注五湖之處)”라 하였다. 이곳은 오호란 ‘장소’로 쓰였다.

④ 所

所는 伐木聲, 거주하는 곳, 土地(田地), 土壤, 영토 등의 뜻이 있다.

㉠ 伐木聲

所는 설문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說文·斤部』: “所(𡩺)는 나무를 베는 소리이다. 斤이 뜻을 戶가 소리를 나타낸다. 시경에 ‘탁탁 나무 베는 소리’라 하였다. 반절은 ‘소(疏舉切)’이다.(所(𡩺), 伐木聲也. 从斤戶聲. 『詩』曰 ‘伐木所所.’ 疏舉切)”

허신은 所의 본의가 伐木聲이라 하였다. 현재의 자료로만 본다면 허신의 설명이 옳은듯하다. 所는 갑골문에 보이지 않는다. 춘추전국시대 자료에 𡩺(春秋 庚壺)로 썼다. 허신의 분석대로 聲符 戶(戶)와 義符 斤(斤)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伐木聲이 본의이다.

王力은 處와 所가 同源字라고 하였다.⁴⁹⁾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자세

49) 王力, 『同源字典』, 商務印書館, 1987, p.155 참조.

히 알 수 없다. 同源의 조건은 音近義通이다. 音은 上古音에서, 字義는 本義 아니면 引伸義에서 같거나 가까워야 한다.⁵⁰⁾ 그렇다면 所의 본의나 引伸義는 장소(곳)와는 관련이 없다. 다만 전고에 所는 처소, 장소, 토지, 땅, 거처 등으로 자주 쓰였다.

㉠ 곳(지방)

곳(지방)으로, 『詩·魏風·碩鼠』 “樂土여 樂土여, 내가 살 곳이다.(樂土樂土, 爰得我所)”라 하였다.

㉡ 활동 공간

활동하는 공간으로, 洪深의 『戲的念詞與詩的朗誦』六에 “場所가 비교적 넓었고 소리도 비교적 강하여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기력을 배가해야 하였다.(場所較廣, 聲音自須較強, 發音人所用氣力自須加多)”라 하였다.

㉢ 머물러 사는 곳

머물러 사는 곳으로, 戰國 楚 宋玉의 『高唐賦』에 “바람은 비를 그쳐 꾀 청케 하고 구름은 머물러 사는 곳이 없네(風止雨霽, 雲無處所)”라 하였다.

㉣ 土地(田地), 土壤

土地(田地), 土壤(땅)으로, 『周禮·地官·小司徒』에 “이에 田地를 관리하여 井으로 하여금 그 田野를 가꾸도록 한다.(乃經土地, 而井牧其田野)”라 하였다. 『漢書·晁錯傳』에 “그 전지의 마땅함을 살핀다.(審其土地之宜)”라 하였다.

㉤ 領土, 疆域

領土, 疆域으로, 『孟子·梁惠王上』에 “그렇다면 왕께서 크게 욕심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토를 넓히고 진나라와 초나라로 하여금 조회하게 하고 중국의 왕이 되어 사방의 오랑캐를 다스리려는 것이지요(然則王之

50) 王力은 동원자의 조건으로 音近義通을 제시한다. 동원사가 되려면 意義와 讀音이 같거나 서로 가까워야 한다고 한다. 王力은 절대다수의 同源詞는 이미 上古時代에 형성됐기 때문에 독음의 기준은 上古音이어야 한다고 하였다.(王力, 『同源字典』, 商務印書館, 1987, p.12 참조). 단, 중고시대에 형성된 동원사라면 中古音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所大欲可知已，欲辟土地，朝秦楚，蒞中國而撫四夷也)”라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地, 土, 處, 場, 所 등은 땅, 토지, 대지, 장소(疆域)라는 뜻을 공유하고 있다. 즉 이들은 같거나 유사한 義를 공유한 한자들로 同源字이다. 따라서 우리말에서 따(땅)를 나타낸 ‘地, 土, 處’는 ‘따(땅)’의 ‘訓·音’에 해당한다.

2. 音韻學的 高증을 통한 탐색

대지, 토지, 장소를 나타낸 ‘따(땅)’를 ‘地, 土, 處’로 기록한 것은 訓·音 借이고, 이를 ‘大, 多, 墮, 達, 吐’로 기록한 것은 音借에 해당한다. 아래에 살펴본다.

1) ‘따(땅)’의 訓·音借인 ‘土, 處, 所, 場, 地’의 음운고증

- ㉠土 : 상고음 透紐 魚部 上聲 t'a, 중고음 透紐 姥部 上聲 t'u 他魯切
- ㉡處 : 상고음 昌紐 魚部 上聲 t'ia, 중고음 昌紐 語部 上聲 tc'io 昌與切
- ㉢所 : 상고음 山紐 魚部 上聲 f'wa, 중고음 山紐 語部 上聲 f'u 踈舉切
- ㉣場 : 상고음 定紐 陽部 d'ian, 중고음 澄紐 陽部 d'ian 直良切
- ㉤地 : 상고음 定紐 歌部 d'ia, 중고음 定紐 至部 di 徒四切⁵¹⁾

우리말 ‘따(땅)’의 이표기 ‘地, 土, 處’의 上古音은 音近하다. 地와 그의 동원자 ‘土, 處, 場, 所’ 역시 音近하다. ㉠, ㉡, ㉢의 韻部는 疊韻이다. 聲紐는 準雙聲(透紐와 昌紐), 旁紐(昌紐와 山紐) 혹은 準旁紐(透紐와 山紐)로 이들은 近音이다. ㉣와 ㉤의 聲紐는 雙聲이다. 韻部는 通轉으로(歌部와 陽部) ㉣와 ㉤는 近音이다. ㉠, ㉡, ㉢와 ㉣, ㉤는 韻部는 對轉(魚部와 陽部) 혹은 通轉(魚, 陽部와 歌部)이고, 성뉴는 쌍성 혹은 旁紐, 鄰紐의 近音이다. 따라서 土, 處, 所, 場, 地는 동원사의 조건인 音近義通 가운데 音近이 음

51) 郭錫良, 『漢字古音手冊』, 北京大學出版社, 1986, ㉠p.104, ㉡p.97, ㉢p.33, ㉣p.250, ㉤p.80.

운학적으로 증명된다.

2) ‘따(땅)’의 음借인 大, 多, 墮, 達, 吐의 음운고증

- ㉠吐 : 상고음 透紐 魚部 去聲 t'a, 중고음 透紐 暮部 去聲 t'u 湯故切
- ㉡多 : 상고음 端紐 歌部 陰平聲 ta, 중고음 端紐 歌部 平聲 ta 得何切
- ㉢墮 : 상고음 定紐 歌部 去聲 dua, 중고음 定紐 果部 上聲 dua 徒果切
- ㉣大 : 상고음 定紐 月部 去聲 dāt, 중고음 定紐 泰部 去聲 dai, 徒蓋切
중고음 定紐 箇部 去聲 da 唐佐切
- ㉤達 : 상고음 定紐 月部 陽平聲 dāt, 중고음 定紐 曷部 入聲 dat, 唐割切⁵²⁾

위 ‘吐, 多, 墮, 大, 達’은 ‘따(땅)’에 대한 음借로 上古音에서 音同 혹은 音近하다. 이들은 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단순히 따(땅)을 나타낸 地(혹은 土)의 독음만 표시하였다. ㉠과 ㉡는 상고음이 聲紐는 旁紐(透紐와 端紐)이고 韻部는 通轉(魚部와 歌部)으로 近音이다. ㉢, ㉣, ㉤는 성紐는 旁紐(透紐, 端紐, 定紐) 혹은 쌍성(定紐)이고 운부는 對轉(歌部和 月部) 혹은 疊韻(月部)의 同音(㉣와 ㉤) 혹은 近音(㉢, ㉣, ㉤)이다. 아울러 ㉠, ㉡, ㉢, ㉣, ㉤는 近音 혹은 同音으로 동원의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이들은 ‘땅’이라는 義측면에서는 義通이 되지 않아 동원사가 아니다. 토지, 대지, 장소를 나타내는 ‘땅’과는 무관하다. 多와 大는 ‘크다, 많다’란 측면에서 音近義通의 同源詞이나 땅과는 무관하다. 吐, 墮, 達은 각각 자의가 입(口), 흙(土), 움직임(乚)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多, 大와 同源詞가 될 수 없고, 땅과도 동원사가 될 수 없다.

이들이 우리말 ‘땅’을 나타낸 것은 단순히 地의 ‘달, 따, 싸’의 소리를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地(定紐 歌部)와 聲紐는 雙聲 혹은 旁紐, 韻部는 疊韻, 對轉, 通轉으로 音近하기 때문에 가차표기가 가능하다.

52) 郭錫良, 『漢字古音手冊』, 北京大學出版社, 1986, ㉠p.104, ㉡p.33, ㉢p.34, ㉣p.3, ㉤p.3.

3. 漢語音韻史와 地의 古字 ‘墜’를 통한 탐색

‘땅’의 祖語를 ‘달’로 봄에 주저한 것은 ‘達’이 16세기 이전 한글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외에도 현재 통용되는 일반 音韻書는 대부분 地의 상고음을 ‘다, 대(dǎa)’로 再構하고 있다. 따라서 ‘달’이 地의 訓·音借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울러 한글 창제 이전에는 ‘달’을 한자 ‘達’로 표현했을 것이란 유추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字義나 讀音에 차이가 있지만 ‘地, 土, 處, 場, 所’는 上古時 독음도, 자의도 유사한 同源語이었다. 특히 地는 上古時 흙(땅), 대지, 토지, 장소를 나타내었고, 독음은 ‘달’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통용되는 音韻書는 地의 上古音을 ‘定紐 歌部’의 ‘다, 대(dǎa)’로, 中古音은 ‘定紐 至部’의 ‘디(지)(di)’로 再構한다. 하지만 地는 ‘다, 대(dǎa)’ 이전 상고의 어느 시점에서는 ‘달’로 읽었을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은 漢語音韻史와 地의 古文 墜를 통해 유추해본다.

1) 漢語音韻史와 入聲 韻尾의 소실

漢語音韻史 측면에서 漢語는 상고시 보유하고 있던 入聲 韻尾(ㄱ, ㄷ, ㅂ)가 소실되는 추세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地의 古文 墜는 上古時 韻部가 物部로 운미에 ‘l(r)’이 존재한다.(아래 ‘3) 地의 古字 ‘墜’의 상고음 再構’ 참조). 이를 염두에 둔다면 일반 音韻書에 재구된 地의 상고음 ‘다, 따’는 운미 ‘l(r)’이 소실된 음가를 반영한 것이다. 즉, 현재의 참고자료로는 ‘다, 따’로 재구할 수 없게 없지만, 그 이전 어느 시점에서는 ‘달’이라는 음가를 지녔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다음 연구 자료를 보면 이를 더욱 신빙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胡繼明의 『『廣雅疏證』同源詞研究』에 墜와 동일한 物部 同源詞의 系聯을 살펴보자.

1. 𡗗(굴: 현재 우리 한자음. 이하 같음) 𡗗(줄) 2. 𡗗(퇴, 대) 退 3. 𡗗(개) 𡗗(개)
- 𡗗(희) 4. 𡗗(찬, 흙, 할) 𡗗(흙) 5. 𡗗(흙) 𡗗(흙) 6. 𡗗(애) 𡗗(애) 𡗗(애) 7. 𡗗(애)

隱(은) 8. 類(류) 律(율) 9. 觶(졸, 철) 頽(철) 憒(철) 𪗇(철) 10. 𪗇(재, 죄) 𪗇(차, 체)
11. 𪗇(블) 𪗇(발) 12. 𪗇(굴) 𪗇(블)⁵³⁾

胡繼明은 『廣雅疏證』에 보이는 同源詞 가운데 隆과 동일한 物部의 同源詞 12조를 위와 같이 系聯하였다. 이들 중 현재 우리한자음으로 운미에 ‘ㄷ(ㄴ)’이 남아 있는 것은 6조이지만, 현대 중국어에서는 운미가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는 地의 上古音 ‘定紐 歌部’의 ‘다, 대(dǎ)는 상고의 어느 시점에서는 운미에 ‘ㄷ(ㄴ)’이 존재한 ‘달’로 읽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孟蓬生은 同源詞 가운데 對轉關係가 音轉規律의 가장 보편적 현상이라고 하였다. 대전관계란 同源인 한자들이 음운학적인 변이를 일으켜 본래 있는 받침이 소실되거나 없는 받침이 새로 생긴 글자들 사이의 音近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孟蓬生은 同源詞 가운데 운미가 ‘k(l),’ 혹은 ‘ㄷ’이고, 10자 이상 系聯된 동원자 가운데 대전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였다.⁵⁴⁾ 이는 곧 전부 다는 아니지만, 物部의 동원자 가운데 운미 ‘k(l),’ 혹은 ‘ㄷ’가 소실되지 않은 경우를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으로, 운미 ‘k(l)’의 소실은 漢語史의 일반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상 胡繼明과 孟蓬生の 연구에서 보듯이 현재 音韻書에 재구된 地의 ‘定紐 歌部(다, 대(dǎ))’는 상고의 어느 시점에서는 地의 고문 隆의 定紐 物部(달(diwǎt))와 같이 읽었을 개연성이 크다 하겠다.

2) 李方桂의 地의 상고음 再構

郭錫良의 『漢字古音手冊』과 李珍華·周長楫의 『漢字古今音表』는 地의 상고음을 ‘定紐 歌部(다, 대(dǎ))’로 재구하였다. 하지만 李方桂는 ‘달’에 가깝게 재구하고 있다. 그는 땅의 이표기 達, 大, 多, 地의 음가를 다음과 같이 재구하였다.

53) 胡繼明, 『《廣雅疏證》同源詞研究』, 巴蜀書社, 2003, pp.285-297 참조.

54) 孟蓬生, 『上古漢語同源詞語音關係研究』,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1, p.156 참조.

達 : *dat, 大 : *dadh, 多 : *tar>ra, 地 : *diarh(?)>di⁵⁵⁾

李方桂는 땅의 이표기 達, 多, 大가 上古時 운미 ‘ㄷ(ㄹ)’의 음가를 지녔을 것이라 하였다. 의문을 표하기는 하였지만 地 역시 운미에 ‘ㄹ’에 가까운 음가를 지녔다 하였다. 李方桂의 이러한 재구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이는 곧 大, 多, 地도 達처럼 상고의 어느 한 시점에서 운미 ‘ㄷ(ㄹ)’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아래에 地의 古文 ‘陞’를 통해 다시 한번 검토한다.

3) 地의 古字 ‘陞’⁵⁶⁾의 상고음 再構

위와 같은 언설 외에 地가 上古時 운미 ‘ㄹ(r)’이 있었을 것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는 地의 古字 ‘陞’의 상고음이다. 郭錫良은 ‘陞’의 상고, 중고음을 다음과 같이 재구하였다.

陞 : 상고음 定紐 物部 去聲 diwāt, 중고음 澄紐 至部 去聲 d_{wi} 直類切⁵⁷⁾

55) 李方桂著, 전광진 역, 『『중국어상고음 연구Ⅱ』』, 『口訣研究』 제12집, 구결학회, 2004, p.312(達), p.314(大), p.316(多), p.316(地).

56) 地의 이체자는 ‘坐 陞 崖 陞 嶺’가 있다. 이들 가운데 陞는 전적에 자주 보인다. 『漢書·地理志下』 “襄王에 이르러 河內를 晉 文公에게 할애하고 또, 제후들에게 침략 당하였기 때문에 그 땅이 작다.(至襄王以河內賜晉文公, 又爲諸侯所侵, 故其分陞小)”라 하였고, 『楚辭·天問』 “共工이 대노하길 땅이 무슨 까닭에 東南으로 기울어졌는가?(康回憑怒, 陞何故以東南傾)”라 하였으며, 『淮南子·天文訓』 “천지가 아직 형성되기 전 시간과 공간이 형성되지 않은 혼돈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를 큰 밝음(太昭)이라 부른다.(天陞未形, 馮馮翼翼, 洞洞瀾瀾, 故曰太昭)”라 하여 陞를 地로 썼다. 陞는 地의 고문으로 宋 王觀國 『學林·古文』에 “司馬遷과 班固가 역사서를 씀에 혹 古文字를 사용하기도 하였다.……陞는 이에 고문 ‘地’이다.(司馬遷, 班固作史, 亦或用古文字……陞, 乃古文‘地’也.)”라 하였다. 곧, 陞가 地의 고문이란 것은 地가 상고 어느 한 시점에서 陞와 같은 ‘달’로 읽었을 개연성을 높여준다 하겠다.

57) 郭錫良, 『漢字古音手冊』, 北京大學出版社, 1986, p.145. 李珍華·周長楫은 “상고음 定紐 微部 去聲 diwai, 중고음 澄紐 至部 去聲 d_{wi} 直類切”(李珍華·周長楫

郭錫良은 上古時 ‘墜’는 운미에 아직 ‘t(l)’이 소실되지 않은 定紐 物部의 ‘달(diwāet)’로 재구하였다. 그는 중고음에 이르러서야 ‘t(l)’이 소실된 ‘澄紐 至部’의 ‘디(지 : d₂wi)’로 읽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참고한다면 地 역시 상고의 어느 한 시점에서는 운미 ‘t(l)’가 보존되었으며, 상고 혹은 중고의 어느 한 시점에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한어음운사, 李方桂의 地, 大, 多, 達 등의 재구, 郭錫良의 墜의 재구를 종합해보면 일반 음운서에 재구된 地의 ‘定紐 歌部(다, 대(dǎa))’는 入聲 韻尾가 떨어진 漢語를 반영한 것으로, 상고의 어느 시점에서는 ‘달’로 읽었을 개연성이 크다.

입성 운미 ‘t(l)’의 소실은 형성자의 聲符나 同源字를 통해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간단히 위 達과 大의 경우에서도 찾을 수 있다. 達은 韋이 聲符이고, 韋은 大가 성부인데,⁵⁸⁾ 達은 ‘달’로, 根源聲符인 大는 현재 운미 소실의 ‘대’로 읽는다.

4) ‘달 달’이 ‘따(땅) 지’로 변한 현상에 대한 검토

‘땅’의 어원을 ‘달(達)’로 규정함에 정리해야할 것이 있다. 우선 필자는 ‘따(땅)’는 地의 訓·音借라 하였다. 아울러 地는 상고의 어느 한 시점에서는 독음이 ‘달’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달’을 한자로 기록한 것이 전적에 보이는 ‘達’이고, 이를 국어에 적용한 것이 양달 음달의 ‘달’일 것이다. 그렇다면 地의 상고시 訓·음은 ‘달 달(地)’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자료는 ‘따 지’와 ‘땅 지’만 보인다. 이런 현상은 민간어원지만 黃胤錫의 다음과 같은 언설을 참고할 만하다.

土의 음은 ‘자’, 主의 음은 ‘자’, 弧의 음은 화(활의 本音)이다. 이는 곧三字가

楫, 『漢字古今音表』, 中華書局, 1993, p.75.)으로 재구하였다. 즉, 상고시 이미 운미 ‘t(l)’가 소실됐다고 보았다.

58) 韋의 성부가 大이기 때문에 상부 ‘土’를 본래의 자형(大)을 따라 韋로 쓰기도 한다.

虞韻이란 뜻이다. 생각건대 우리나라의 이러한 독음들은 반드시 옛 당나라 때에 傳來되었다가 중간에 宋, 遼, 金, 元, 明 등 역대를 경유하는 동안, 저 중국 음도 여러 번 변하였고, 우리나라에 傳習된 것들도 또한 따라서 변하였다. 다만 중국 한자음이 비록 변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세속에서 쓰고 있는 말은 여전히 옛날과 똑같이 썼다. 다시 살펴보건대 瓜자의 음은 ‘와’이다. 이를 聲符로 한 孤(강헌규 역주본에는 ‘孤’로 오기됨)자도 또한 그 음이 ‘와’이다. 이에 의거하면 瓜자도 옛날 독음이 또한 ‘오’일 것인데, 지금은 중국어에 의하여 (瓜의 음을 ‘과’로 발음할 뿐이다.(土音자 主音자 孤音화(활本音) 此則 虞字三韻也 意者 我東此音 必古唐世傳來 而中經宋遼金元明歷代 被漢音累變 而東人傳習亦隨而變 但字音雖變 而俚語則猶舊耳 又按瓜字音의 孤字從瓜亦音의 據此則瓜字古亦音오 而今依漢語音과耳)⁵⁹⁾

황윤석은 “土의 음은 ‘ㅈ’”라 하여 ‘땅’은 土의 독음에서 온 말이라 하였다.⁶⁰⁾ 地가 아닌 土에서 왔다는 것이 조금 이색적이지만 地, 土, 處가 동원임 점을 감안하면 地의 음이 ‘ㅈ’라 한 것과 같다.

黃胤錫은 土의 ‘ㅈ’는 세속에 전해지는, 적어도 당나라 무렵의 독음이라고 한다. 당나라 때 전수됐는지 여부와 地의 독음을 土의 독음으로 오해했는지는 논외로 한다 해도, 그는 중국어가 宋, 遼, 金, 元, 明 등을 거치면서 演變되고, 우리한자음도 이에 따라 변했다고 한다. 우리 한자음이 변했다는 것은, 자전을 편찬하면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 초기 세속에 이미 정

59) 黃胤錫 原著, 姜憲圭 譯註, 『(譯註 影印) 華音方言字義解』, 三光出版社, 1985, 역주부분 p.15 참조, 영인부분 p.14. 번역은 강헌규를 참조하였으나 필자의 번역과 차이가 있어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다. 예컨대 ‘意者 我東此音’을 강헌규는 ‘뜻(意)이란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 음이다.’라고 해석하였는데, 문리에 순조롭지 않다. ‘意者’는 추측을 나타내어, 대개, 아마, 혹은 등으로 해석된다. 『墨子·公孟』에 “지금 내가 선생을 모신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나 복이 이르지 않으니 혹 선생의 말에 不善함이 있단 말인가?(今吾事先生久矣, 而福不至, 意者先生之言有不善乎)”라 하였다. 劉向의 『說苑·君道』에 “桑穀이란 나무는 들판에서 자란다. 그러나 조정에 가면 아마 나라가 망할 것이다.(桑穀者, 野草也, 而生於朝, 意者國亡乎)”라 하였다.

60) 황윤석의 주장은 地, 土, 處가 音近義通의 동원자이기 때문에 근거 없는 말이라 할 수 없다.

착된 음가를 버리고 변화된 중국 한자음을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한자에 대해 우리 자전의 독음과 세속의 독음이 다르게 발음하였다는 것으로, 地의 訓·音借인 ‘달 달’이 訓과 음의 ‘따 자’로 인식하게 된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황윤석은 그 예로 瓜의 전래 초기 독음 ‘오,’ 중간 音變된 ‘외,’ 현재의 중국음을 반영한 ‘과’처럼, 土를 현재 자전에서는 ‘토’라 읽는데 세속에서는 아직도 도입초기의 독음 ‘자’를 고집한다는 것이다. 황윤석의 이런 주장은 地의 독음 역시 상고의 어느 한 시점에서 ‘달’로 읽었고, 아직도 세속의 일부 단어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양달 음달의 ‘달’이고, 史書에 보이는 ‘達’일 것이란 합리적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사소하지만 塲의 방언 역시 하나의 참고가 될 것이다. 독음이 ‘달’인 塲은 방언에 處所를 가리킨다. 馬烽西戎의 『呂梁英雄傳』第22회에 “올 설에 나는 상점의 동료들과 한 곳에 앉아 몇 잔 마시려고 했다. 하지만 당신들 민병들의 공무가 더욱 중요하니 이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今年過年, 我本想掌櫃伙計, 坐到一塲喝幾盅. 可是你們民兵的公事更重要, 這也是沒辦法的事)”라 하였다. 우리 컴퓨터 한자 자전은 塲을 ‘작은 언덕 달’이라 하였는데, 위 문장에서는 장소, 처소를 가리킨 것처럼 독음 ‘달’은 한어에서 地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처소 외에도 중국 방언에 ‘다(달)’라는 음가는 조그마한 무더기를 나타내기도 한다. 예컨대 흙더미를 가리키는 坨(을)은 乞(걸)이 聲符이다. 坨은 2음절의 坨台 坨塚 坨塔로 쓰기도 하는데, 작은 덩이, 흙덩이, 작은 언덕, 地方 등을 ‘坨塔,’ ‘坨塲’로 쓰기도 한다. 坨塔의 塔은 본의가 불쑥 솟아오른 것을 나타내는데, 이 塔(瘡)을 塲로도 쓰고, 塔(瘡)과 塲은 현대 중국어에서 성조만 다른 da(塔) dá(塲)로 읽는다.

이상을 참조하면 중국어의 일부 방언 지역은 地, 達과 유사한 음가를 가진 詞가 장소, 작은 언덕 등을 나타내듯이, 우리 古語에서도 ‘달’이란 詞가 장소, 작은 언덕, 높은 곳, 산을 나타내었다.⁶¹⁾ 따라서 우리말 ‘달’은 地의 옛 음을 간직한 것이고⁶²⁾ 그 뜻 또한 작은 언덕, 산, 높은 곳을 비롯하

여 대지, 장소, 토지 등을 나타내게 되었을 것이다. 즉, 우리말 ‘달’은 地의 옛 음과 뜻을 모두 간직한 것이다. 이의 방증으로 중국 상고한어에서도 地는 ‘달’이라는 음가를 가졌을 것이고, 자의는 땅, 흙, 대지, 토지, 장소, 처소, 마당을 나타내었을 것이다. 이는 地의 同源 ‘場所處土’ 등을 통해서도 증명되었다.

정리하자면 地의 옛 음은 ‘달’이었고 음차 표기된 양달, 음달 비탈, 아사달 등의 ‘달’과 同源이고, 나아가 土處場所 등과도 同源이며, 더 나아가 堤, 언덕의 덕, 마당의 당, 들, 산, 장소를 나타내는 ‘다, 데’와도 동원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말 ‘달’은 상고한어 地의 訓과 음을 그대로 따른 것인데, 한글 창제 이전에는 이를 한글로 표기할 수 없어 한자 ‘達’로 표기하였을 것이다. 후에 地의 독음이 ‘달’에서 ‘다(대)’로 演變 되면서 전적으로 이를 반영한 표기가 多, 大, 墮, 坳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地의 중국음도 ‘달>다(대)>디(지)’로 연변 되었고, 이를 반영한 우리 독음이 ‘달>따(땅)>지’일 것이다. 訓과 음을 한 묶음으로 익히는 우리 한자 학습 습관을 고려하면 地의 훈과 음은 ‘달 달’ ‘따 따’ ‘땅 땅’이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자전과 훈몽서는 ‘따 지’와 ‘땅 지’로 표기되었다. 이는 세속의 보수적 독음 견지와 자전의 현존 독음 반영이라는 괴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곧, 보수적으로 옛 독음을 지킨 세속과 변화된 독음을 반영한 자전과의 불일치성으로 일어난 결과이다. 세속은 地의 옛 독음 ‘따(상고음)’를 견지하고 있으나 자전은 이미 변화된 독음 ‘지(중고음)’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따 따’가 아닌 ‘따 지’가 되고, ‘따’는 訓으로 ‘지’는

61) ‘달’을 ‘산’과 同源으로 보는 견해는 음운학적인 타당성이 있다. 山은 ‘상고음이 山紐 元部 ʃeən, 중고음이 山紐 山部 ʃæn’(郭錫良, 『漢字古音手冊』, 北京大學出版社, 1986, p.189.)으로, 達의 ‘상고음 定紐 月韻 dāt, 중고음 定紐 曷韻 dāt’(郭錫良, 『漢字古音手冊』, 北京大學出版社, 1986, p.3.)과 隣紐 對轉의 近音이다.

62) ‘달’은 土의 독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다. 土 역시 상고시 透紐 魚部の 다, 타(t'a)에 가깝게 읽었다. 하지만 중고음에서 透紐 姥部の 토(t'u)에 가깝게 읽었기 때문에 地의 중고음 定紐 至部の 디(지)(di)를 참고하면 地의 독음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독음으로 오해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상고한어의 어느 시점에 ‘달’로 읽던 地를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 중국의 독음이 ‘달>다>디(지)’로 연변했다. 이를 우리의 세속과 자전이 축차적으로 서로 다르게 수용한다. 예컨대 세속은 상고시기의 독음인 ‘달’을 양달 음달의 ‘달,’ 史書의 達(阿斯達)에서 여전히 간직하기도 한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중국은 이미 唐代(중고음)에 ‘지(디)’로 연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7세기 이후에도 여전히 上古音 ‘다(따)’를 고집하고 있었다. 민간어원에 보이는 ‘多, 大, 墮, 吐’가 그것으로 이는 상고한어 ‘da’의 수용이다. 한편, 자전이나 훈몽서는 변화된 중고한어 ‘di’를 수용하여 地의 독음을 ‘지’로 표기하면서 마침내 세속의 ‘따’는 訓으로, ‘지’는 독음으로 오인하게 되었다. 하지만, ‘따 지’의 ‘따’는 상고한어를 반영한 것이고, ‘지’는 중고한어를 반영한 것이다. ‘따 지’의 ‘따’가 ‘지’와 동일한 地의 독음의 연변이다.

중국은 한자를 익힐 때 우리처럼 훈과 음으로 익히지 않는다. 우리는 모국어에 있기 때문에 한자의 訓은 당해 한자에 대응된 우리 국어로 대입하고, 음은 수용 당시의 독음으로 읽는다. 그런데 訓은 수용된 한자에 대응되는 우리말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반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일 경우, 한자를 수용할 때 ‘독음’을 그대로 訓으로 받아들인 訓·音借가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地의 달, 隼의 붓, 帶의 띠, 其(箕)의 키 등이 그런 경우이다. ‘산 산’의 ‘산’은 사용과정 중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참고하면 우리말 ‘따(땅)’의 祖語로 생각되는 ‘달’은 地의 독음과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 訓·音借이다. 이는 字義 方面의 고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地, 土, 場, 處, 所’가 토지, 대지, 장소를 나타내는 音近義通의 동원자라는 점에서 ‘달’이 땅의 조어일 가능성이 고증된다고 하겠다.

VI. 결어

‘땅’의 어원에 대해 미상이라는 주장과 ‘달’이 조어라는 주장이 상존하였다. 국어학계는 ‘몽고어, 만주어, 일본어’ 등과 사서에 보이는 ‘達’을 참고하여 ‘달’이 祖語라 한다. 필자도 이에 동의하나, 국어학계와는 달이 어원을 상고한어에서 찾았다. 국어에서 토지 대지 장소를 나타내는 ‘따(땅), 다, 데’는 同源語인데, 이를 한자 土, 地, 處로 표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선조들은 ‘土, 地, 處’를 同源語로 인식하였다.

上古漢語에서 地의 독음은 ‘달’이고 ‘따(땅) 지(地)’의 ‘따’와 ‘지’는 모두 상고한어 ‘달’의 音變이며, ‘달 > 따 > 지’의 변화를 겪었을 것이다. 地는 수용초기 ‘강 강(江)’처럼 ‘달 달(地)’의 訓·音借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漢語의 변화에 따른 우리사전의 수용과 세속의 보수적 사용의 간극으로 인해 地의 독음 ‘달, 따, 지’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수용되면서 ‘따’와 ‘지’를 訓과 音으로 오해하게 되었다. ‘달, 따, 지’의 서로 다른 수용 현상과 혼용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地의 上古音에 대해 현존 音韻書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定紐 歌部’의 ‘다, 대(dǎ)’로만 재구하였다. 그러나 地의 古字 墜의 ‘定紐 物部 diwǎ’를 참고하면 상고의 어느 시점에서는 ‘달’로 읽었을 것이다.

둘째 地의 ‘달’이 ‘따’로 演變된 것은 입성운미 소실의 한어음운사가 반영된 것이다. 민간어원에 보이는 ‘多(다) 大(대) 墮(타) 吐(토)’는 운미 ‘ㄹ’이 탈락된 ‘따’를 나타내는 것이고 아울러 地의 상고음 ‘定紐 歌部’를 音借한 것이다.

셋째 ‘따 지(地)’의 ‘지’는 地의 中古音 ‘定紐 至部’의 ‘디(di)’를 반영한 것이다.

넷째 ‘따 지(地)’의 ‘따’와 ‘지’는 地의 訓·音借인 ‘달 달(地)’의 演變이다. ‘따’는 訓, ‘지(地)’를 音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漢語의 변화에 따른 우리사전의 수용과 세속의 보수적 사용의 간극으로 인해 조성된 것이다. 황윤석

의 언설을 참고하면 새로 제작되는 자전은 중국의 변화된 독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地의 ‘달>다(따)>지’의 音變에, 세속은 오래전 수용된 음가를 고수하여 경우에 따라 ‘달’ 혹은 ‘따’를 반영하여 ‘양달, 阿思達의 ‘달’ ‘따지’의 ‘따’가 나오게 되었다. 문헌에 보이는 ‘達,’ 양달 음달의 ‘달,’ 17세기 이후 민간어원에 보이는, 상고한어 ‘따(다(dīa))’를 나타낸 ‘多大墮 ㅌ’가 이들을 반영한 것으로, 이들은 자전에 이미 반영된 중고음 ‘지(di)’를 외면하고 있다. 이런 특수한 언어 환경으로 인해, 자전이나 훈몽서는 독음은 ‘지(디)’로 訓은 ‘따’로 수용하였다. 地의 초기 ‘달 달’의 訓·音借를 참고하면 ‘따 따(地)’ ‘지 지(地)’가 되어야 하는데, 자전과 세속의 수용 차이로 ‘따 지(地)’가 된 것이다.

다섯째, 우리말 ‘따(땅)’는 토지, 대지, 장소를 아우르는 다의어이고 ‘다, ㄷ, 데’와 同源語이다. 典籍은 이를 ‘土, 地 處’로 기록하였는데 ‘따(땅), 다, 데’는 ‘土, 地, 處’의 訓·音借이다. 이는 국어 ‘따(땅), 다, 데’가 漢語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따(땅), 다, 데’는 地와 地의 동원인 ‘土 處 所’로부터 왔음을 나타낸다. 漢語 ‘地, 土 處 所’의 上古音은 ‘따(땅), 다, 데’와 유사하고, 대지 토지 장소를 나타내는 同源詞이다. 따라서 이들을 참고하면 우리말 ‘달’ ‘따’는 상고한어 地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

서정범은 국어의 祖語와 중국어의 조어는 상호 관계가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신체어를 중심으로 고증하기도 하였다.⁶³⁾ 국어 ‘따, 다, 데’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대략 토지 대지의 ‘따’는 地로, 장소의 ‘다, 데’는 處로 수렴되는 듯하다.

63) 서정범의 주장 가운데 눈에 띄는 것 하나가 目이다. 그는 目은 현재 중국어는 mu이지만 廣東語 muk, 베트남어 mác을 참고하면 祖語形은 mVt로 추정되며, 국어 눈이 멀다, 눈알이 말뚱 말뚱하디의 어근 ‘말’ ‘멀’과 同源語로 추정하였다.(서정범, 『國語 語源研究 方法論』, 『어원연구』 1집, 한국어원학회, 1998, p.52 참조.)

〈參考 文獻〉

1. 저작류

〈한국〉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원, 『한국어대사전』, 2009 초판.
國語學會編, 『國語學資料選集 I』 『朝鮮館譯語』, 一潮閣, 1972.
김민수 편, 『우리말 語源辭典』, 태학사, 1997.
박재연 주편,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필사본 고어대사전』, 學古房, 2010.
박재연·이현희 주편,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고어대사전』, 선문대학교 출판부, 2016.
박찬식, 『유해류 역학서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8.
백문식,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 三光출판사, 1988.
백문식, 『우리말 어원 사전』, 박이정, 2014.
서정범, 『國語語源辭典』, 도서출판 보고사, 2000.
서울大學校 奎章閣韓國學研究院 編, 『譯語類解』(奎章閣資料叢書: 語學篇)(영인본), 서울대학교, 2005.
李炳銑, 『韓國 古代國名地名の 語源 研究』, 이회, 2012.
李義鳳 編, 『古今釋林』, 제3책, 『東韓譯語』, 亞細亞文化社(서울), 1977.
鄭喬, 『東言攷略』, 蓋馬書院, 1919년 既刊, 1981.
조영언, 『한국어 어원사전』, 다솜 문화출판사, 2004.
趙在三著, 姜玟求譯, 『松南雜識』(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동양편; 094), 소명출판, 2008.
조항범, 『국어 어원론』, 충북대학교 인문·사회연구총서 10, 도서출판 개신, 2009.
黃胤錫 原著, 姜憲圭 譯註, 『(譯註 影印) 華音方言字義解』, 三光出版社, 1985.

〈중국〉

- 郭錫良, 『漢字古音手冊』, 北京大學出版社, 1986.
孟蓬生, 『上古漢語同源詞語音關係研究』,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1.
王力, 『同源字典』, 商務印書館, 1987.

李珍華、周長楫, 『漢字古今音表』, 中華書局, 1993.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 1994.

胡繼明, 『『廣雅疏證』同源詞研究』, 巴蜀書社, 2003.

2. 논문류

김지형, 「同名異記 人名語 音韻 語源」 - 『三國遺事』를 중심으로 -, 『어원연구』, 2집, 한국어원학회, 1999, pp.163-189.

박재양, 「자리끼 외 몇 단어의 語源」, 『어원연구』 제2호, 1999, 한국어원학회, pp.65-83.

서정범, 「國語 語源研究 方法論」, 『어원연구』 1집, 한국어원학회, 1998, pp.11-56.

李丙燾, 「阿斯達과 朝鮮」 - 특히 그名稱에 對하여 -, 『서울대 論文集』 2호, 서울대학교, 1955, pp.1-8.

李方桂著, 전광진 역, 『『중국어상고음 연구Ⅱ』』, 『口訣研究』 제12집, 구결학회, 2004, pp.293-354.

Abstract

Research on the Origin of a Word ‘땅(tbang)’

Han Youn Suk*

There are two arguments that the origin of ‘Tae(따 지)’ can not be known and ‘dal(달).’ I agree with the argument that the ‘dal(달)’ is the root.

The evidence was found in the Di(地) in Archaic Chinese. The reading in the Archaic Chinese was the ‘dal(달).’ This ‘dal(地)’ has turned into a tha(따 땅) and a ji(지) This is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the first, If you refer to the ‘diwāt(달) of jengnu mulbu(定紐 物部)’ in Archaic Chinese, you would have read it as ‘dal(달)’ at some point in the appeal.

The second, pronunciations of ‘dal(地)’ make a change tha(따), which reflects the Chinese word of loss of the sound of the entrance.

Third, ‘Ji(地)’ of ‘tha ji(따 지(地))’ is a reflection pronunciation in medieval times ‘jengnu jibu(定紐 至部) di(地)’ of ‘di(地)’

【Key words】 dal(達), tha(따), thang(땅), di(地), di(墜), dongwonsa(同源詞)

투고일 : 11월 9일, 심사완료일 : 12월 1일, 게재확정일 : 12월 4일

* a professor of Chinese writing education at College of Education in Kongju University located in Kongju, Choongchungnamdo, South Korea / hanyoun4860@hanmail.net

